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2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예배당·학교 등 불법체류자 체포 자제 정책 폐지 예정
 - 12.12 언론은 「도널드 트럼프」美 대통령 집권 후엔 이민세관단속국(ICE) 요원이 예배당, 학교, 병원 등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도 감독관 승인 없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보도
 - ※ 「트럼프」 정권 재출범 이후 무슬림 등 특정 종교 대상 이민금지령 및 추방 정책들이 극단주의 테러 선동 가능성에 따라 관련 사항 모니터링 강화 및 우리 재외국민 안전 유의
- 美 대사관, 시리아 거주 자국민들에게 출국 권고(뉴시스)
 - 12.16 시리아 주재 美 대사관은 시리아 內 안보 상황이 무력충돌·테러 등으로 계속 불안하다며, 미국인들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,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사태 대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성명 발표
 - ※ 우리 외교부는 시리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였으며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인근 국경지대 방문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공지 게시

아프리카

- 니제르, 테러범 추정 공격으로 민간인 39명 사망
 - 12.16 언론은 니제르 국방부가 자국의 서부 국경지대에서 최근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두차례 공격을 받아 同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39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보도
 - * 현재 니제르와 인근지역의 말리, 부르키파소는 2012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단체에 점령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위협 억제 노력 중

유럽

○ 러, 모바일 메신저 앱 '바이버(Viber)' 차단 조치

- 12.14 러시아 당국은 메신저 앱 '바이버'를 이용해 테러나 극단주의 활동, 시민 동원, 마약 판매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메신저 앱을 차단 조치했다고 발표
 - ※ 러시아는 '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한 이후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자국민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(X·페이스북·인스타그램·디스코드)를 차단

○ 英·EU, 테러 등 대비차 내년부터 사전 입국 허가 의무화

- 12.16 언론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테러 위협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'25년부터 영국 등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의 생체정보 등록과 온라인상 사전 입국 허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국경보안 강화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생체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우려,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아·태평양

○ 호주, '유대회당 방화' 잇단 위협범죄

- 12.11 언론은 시드니 內 유대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차량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고 옆 건물 벽에 'Kill Israel' 낙서가 새겨졌으며, 호주 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보도
 - ※ 이스라엘은 호주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하였고 美 유대인 인권 단체 '사이먼 빈젠탈 센터'는 호주 여행 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

○ 아프간, 난민부 장관 IS 자폭 테러로 사망

- 12.12 언론은 아프간 난민부 청사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「칼릴 라흐만 하카니」 난민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, IS는 성명을 통해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
 - ※ 탈레반과 IS는 같은 수니파 계열이지만 평화협상 등 對美 정책에 이견을 보여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,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첫 장관급 인사 표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주목

○ 태국, 축제장서 폭탄 테러로 3명 사망·48명 부상

- 12.15 언론은 태국 축제 현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,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(KNU) 소속으로 라이벌 조직원을 보복하기 위하여 테러를 실행했다고 보도
 - ※ 카렌민족연합(KNU)는 SNS를 통해 이번 테러는 자신들과 무관하며 테러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

베를린 크리스마스마켓 트럭 돌진 테러

- '16.12.19, 20시경 독일 베를린市 샤를로덴부르크 지역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의 크리스마스마켓*에서 '트럭 돌진 테러'가 발생하여 13명 사망, 56명 부상



<테러 이용 트럭 동선 >

*<크리스마스마켓> 14세기경부터 시작되어 독일·오스트리아 도시의 주요 광장 등에 1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운영되는 한시적 시장으로, 전통음식·음료 및 크리스마스 장식품·선물 등을 판매하고 문화·예술프로그램 개최 (해당 시기 독일 전역에서 약 3,400개 이상의 크리스마스마켓이 운영)

- 튀니지 출신 '아니스 암리'는 운전사를 살해하고 19톤 트럭을 탈취 후, 시장 내부로 진입하여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 돌진 테러를 자행 - 범행 이후 프랑스를 경유하여 이탈리아로 도주하였으나, 12.23 밀라노에서 경찰 불심검문 중 발견되어 총격전 끝에 사살
- '아니스 암리'는 '11.2 이탈리아에서 방화로 복역 중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으며, '16.6월 독일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ISIS의 '크리스마스마켓 테러 선동'에 자극받아 범행을 자행
- * 이번 테러는 '16.7월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

⇒ 크리스마스·연말 기간을 맞아 다수의 인파가 특정 장소에 몰릴 수 있으므로 다중운집시설 대상 테러 위협 모니터링 강화 필요

< 차량 돌진(Vehicle Attack) 테러 >

- (정의) 차량을 시설물이나 사람을 향해 주행하여 그 충격으로 파괴·살상하는 테러 유형
 - ※ 차량 자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, 차량에 폭발물을 싣고 폭발시키는 '차량 폭탄테러'(Car Bomb)와 구별
- (특징) △특별한 기술 불필요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획득 △목표물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적 피해 유발 가능 △사전 준비 기간이나 차량 이외의 유형적 준비가 불필요
- (사례) △'16.7.14 佛 니스 차량 테러 △'16.12.19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차량 테러 △'17.3.22 英 런던 브릿지 차량 테러 △'17.4.7 스웨덴 스톡홀름 차량 테러 △'17.8.17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△'17.11.1 美 뉴욕 맨하튼 차량 테러
- (대책) 블라드·로드 블럭 등 장애물 설치, 트럭에 자동제동장치(AEBS) 설치 의무화, 특정 지역 접근을 막는 Geo-fencing 도입, 저속주행을 유도·강제하는 진입로 설계 등